

ECHO

vol. 19

고독한 계절가

고독을 음악으로 '음악주의자'

'ECHO패치 - 학과 홍보 영상 수상자들'

19

2018.NOV

VOL19 CONTENTS :

E

05 이달의 주의자_VOL.19

- 음악 주의자

C

10 은행 한 알에 기억 하나

11 고독함을 즐기는 구역

12 엄마의 구멍 난 팬티

14 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H

19 ECHOPATCH

- 학과 홍보 영상 수상자

23 고독한 그가

O

29 종종먹보

-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32 Falling in black tea

34 유재하의 노래

37 시월의 시

40 고독 대신 구독은 어때?

42 GET READY WITH ECHO

- The mood of Autumn

- Hi! I'm Corduroy

45 현상소

46 VOL19 EVENT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홀로 생각이 깊어지고 고독해지는 계절입니다.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땡 뚫려야 하는데
이상한치 만큼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을은 저에게는 고독함을 주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꼬리를 물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고독한 가을을
보내고 있을 거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독한 사람',
'가을 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계절가'가 탄생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을의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죠.
이번 호는 고독한 계절가들의 이야기,
고독하지만 고독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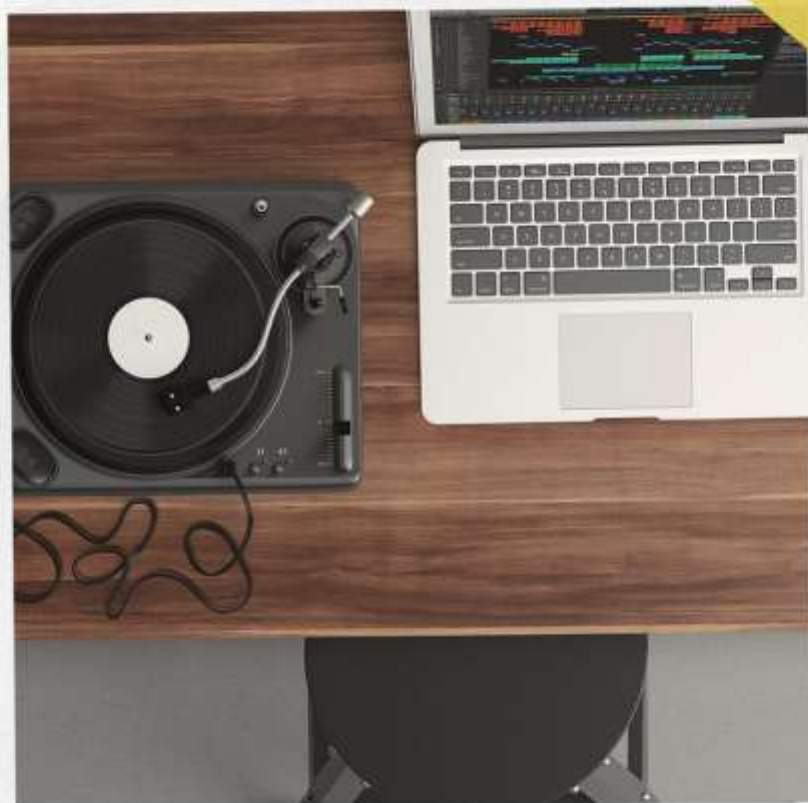
E

engaging

이달의 주의자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이달의 ISM人

VOL.19



음악주의자
이다혜

황당한 부탁이었다

“선배 에코에 글 하나만 써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연락 와서 한다는 소리가 ‘글을 써 달라’는 얘기라니. 연락을 싫어한 나에 대한 후배의 배려였겠지만 이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처음엔 고민해 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글 쓰는 것도 귀찮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글을 써봤자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오겠냐는 생각이 컸다. 그러나 후배는 계속 부탁의 연락을 보냈다. 어디 한 번 들어나 보자 싶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근데 5일만에 글을 쓰란다.
뭔 얘기를 해야할 지 고민이 된다.

본론에 앞서,

현재 본인은 ‘음악감독’이 되고 싶어서 없는 재능 끌어다 모아 열심히 살고 있다. 대개 사람들이 꿈이 뭐냐 물었을 때, “작·편곡 다 하는 음악감독”이라고 얘기해주면 대부분 멋있다는 반응과 동시에 “Why?”가 따라붙는다. 이 ‘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왜 전공을 안 따라가는가?’, ‘왜 음악감독이 되려는가?’ 등.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썩 기분이 좋진 않다.

음악감독? 음향감독?

많이 헷갈려들 한다. 음악감독과 음향감독은 다른 직업이다. 음악감독은 노래의 배치 적용뿐 아니라 작·편곡과 저작권 문제 등을 다루는 꽤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한다. 그에 비해 음향감독은 미디어에 적용될 사운드의 전기신호를 다루는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렇다 보니 음악감독은 실용음악과 출신이 많지만 음향감독은 전기공학과 같은 이공계열이 많은 편이다. 물론 요즘엔 음악감독이 음향까지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음악을 하게 된 계기를 묻는다면

신문방송학과(現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다. 평소 좋아하던 신문읽기에 동경심이 생겨 신방과에 진학했지만, 좋진 않았다. 원래 가지고 있던 언론인이라는 꿈이 예전만큼 뜨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언론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념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속이 개운치도 않았다. 내게 ‘언론’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 정쟁(政爭) 판처럼 느껴졌고 피곤함을 느꼈다. 그 순간 정

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주변에서 “꼭재일은 글을 쓰고 분석하는 걸 잘한다.”더라. 근데 그건 ‘잘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봤다. 과거에서 찾으려는 것은 ‘내가 어릴 때 한순간이라도 미쳐 살았던 것’. 중학교 때 작곡 과제에 몰두해 꼬박 3일을 날려 먹은 적, 예술 고등학교를 동경하던 어린 나, 고등학교 진학 후 힙합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며 공연했던 시절 등. 생각보다 하고 싶었던 것은 명확했고 결정을 내렸다.

명확해졌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결정을 내린 후다. 이미 신방과를 진학했다는 것과 졸업해야 하는 것. 생각보다 큰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택해야만 했다. 이곳을 떠나거나, 우선 끝내고 늦게라도 시작하거나. 전자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까웠다. 돈은 크게 중요치 않았다. 어차피 외부 학자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으니까. 후자도 시간의 문제였다. 입대하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거 같다. 내 인생에 이렇게 긴 시간을 고민에 투자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영상 제작 강의였다. 뒤통수를 치듯 갑자기 생각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어차피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한다면 최대한 이용하자.” 그게 내가 복학하고 처음 한 생각이다. 퍼즐 조각이 모여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밑그림을 그려냈다. 계획은 단순했다. 영상 제작 강의든 영상 관련 공모전이든 영상과 관련된 것들에 참여하면서 영상에 쓰일 음악을 만들자는 것. 그게 첫 목표가 됐다. 졸업하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 이 학과와 강의를 철저하게 이용하자는 게 결론이었다.

시행착오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처음 내 목표를 시행해 볼 강의를 필요했다. 마침 복학 학기에 영상제작 수업인 '영상미학 이해하기'가 있었다. 기말고사를 시험 대신 영상제작물로 대체한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시간표를 수정했다. 그렇게 내 인생 첫 영상제작 강의를 듣게 됐다. 기말고사는 빠르게 다가왔다. 사전에 얘기를 나눈 대로 조원들과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장면엔 삽입될 음악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곡들을 리퍼런스(Reference)해서 새로운 곡의 틀을 잡았다. 입대하기 전 작곡공부를 위해 마음먹고 다녔던 학원에서의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총 다섯 개의 짧은 곡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3가지 곡의 틀을 만드는 시간만 3일이 걸렸다. 구체화 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틀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오래 걸렸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 구체화보다 틀을 만드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었다. 혹시나 표절이지 않을까, 상황을 강조시키긴커녕 방해하지 않을까. 수차례 반복 작업이 진행됐다.

3일간 잠도 못 자고 조원들에게 계속해서 컨펌을 받았다. 그렇게 허접스럽게 완성된 곡들은 제작물에 삽입됐고 반응도 꽤 괜찮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 하나인 '아직 한참 멀었다.'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처음 제작물에 음악을 작곡한 후 피곤해서 며칠을 잠만 잤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다. 다니던 학원 선생님에게 포털 사이트 N사의 팟캐스트 중 해외축구 소식을 다루는 방송의 오프닝 곡을 외주로 받은 경험이 있다.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작곡에만 '시간을 갈아넣었다.' 그렇게 완성된 곡을 선생님께 들려드리니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모호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아직도 그 표정과 나에게 해주신 말도 기억난다. "재일씨가 열심히 만든 티가 많이 나네요. 근데 곡이 엄청 신나지 않아요." 그러곤 선생님은 일주일의 시간을 더 줬다. 충격은 꽤 오래갔고, 나는 결국 죄송하단 말과 백지상태의 파일을 전달했다. 우연찮은 인연으로 받게 된 내 인생 첫 외주는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래도 그러한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고, 그로 인해 영상미학 수업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게 아닐까. 요즘엔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한다.

요즘엔

한동안 뜸하다가 얼마 전에 익명의 A 군이 영상 과제의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엔 농담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진지했다. 그리고 A 군은 또 자신의 콘텐츠를 위해 작곡을 도와줄 수 없겠냐는 말을 꺼냈다. 이쪽은 농담이 맞는 거 같다 아마도. 막상 진행하고 싶어도 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직 학생이고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과업들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차라리 일주일 동안 학교에 관련된 스케줄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최근에 작곡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학교생활은 생각보다 바빴다. 수많은 조 모임 활동과 근로를 하고 나면 늦은 시간이었고, 운동 후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새벽을 향하고 있었다. 뭐라도 해야지,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게 작곡과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작업이었다. 음악의 장르부터 장르의 특성과 독특한 선율, 악기의 사용방법과 어떤 악기를 사용한 곡인지 등, 작곡을 직접 하긴 힘든 상황이어서 기본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A 군의 부탁은 '글을 써 달라'는 후배의 부탁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했다. 물론 못할 수도 있다는 보험은 깔아댐다. 난 재능이 없어서 만들고 싶다고 똑딱 만들어 내지는 못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음악이든 예술이든 원래 '허울 좋은 하늘타리'라고 멋있어 보여도 결국엔 골머리 앓는 작업이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본이 없으면 하기도 힘들고 재능마저도 없으면 하지 않는 쪽이 좋다. 나도 물론 '노(No)재능'이다. 괜히 몸 고생 마음고생 동반하면서 산다.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작업할 때만큼은 반 페인으로 지낸다. 무슨 직종을 선택해도 몸 편히 맘 편히 지내는 직종은 없을 것이다. 그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미컴과 학생일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왔는지는 본인이 잘 알겠지만, 간혹 나 같이 대열에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 이탈할 것인가. 우선 '못 먹어도 고'할 것인가. 그런 친구들에게 그냥 주어진 환경을 철저히 이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확실히 선택해야 한다. 막연히 '음악 감독(이든 뭐든)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좀 더 고민해보자. 내가 한순간 혹해서 빠진 거 아닐까, 하고 말이다.

간혹 누군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인생은 짧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다간 평생 여기저기 발만 담그고 끝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다가 내 가족들에게 더 상처를 남기고 살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의 달콤한 얘기가 나한테까지 적용될 것이란 거대한 환상은 없애는 게 좋다고 본다.

주어진 조건에 최대한 '나'를 발휘하려는 계획을 짜는 것. 확신을 할 때까지 고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꿈을 찾는 여행의 준비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C

communicating

은행 한 잎에 기억 하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면 다들 반가워한다.
단풍도 들고 꽃도 피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닌다. 하지만 이 가을이 마냥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다.
왜냐고? 바로 은행 때문이다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에 매달린 은행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 모습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은행나무의 열매 때문에 매일 걸을 때마다 땅을 보고 열매를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걷는다.
마치 지뢰밭의 지뢰를 피하듯이, 하루종일 은행 나무 열매를 피해 열심히 걸어 다니다
어두운 밤가로등 불빛마저 하나도 없는 골목길에 은행 열매가 있는 줄 모르고 밟았을 때,
그때의 기분을 떠올리면 땅만 걸었던 나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은행이라 하면 지독한 냄새만이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의 은행은 또 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다. 매년 가을이 되면 할머니가 우유갑을 깨끗이 씻어
거기에 은행 열매를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몸에 좋은 것이라고 먹으라고 준 기억이 난다.
꼭 하루에 10개 이상은 먹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나에게 먼저 은행을 내밀었다.

은행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기억이 먼저 생각나고 매일 피하고 싶은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 속 저편에 있던 소소한 은행의 기억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고독함을 즐기는 구역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길 원한다. 그 공간은 나만 아는 비밀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혼자 조용히 하고 싶은 걸 하며 고독을 즐기는 것만큼 큰 휴식이 있을까? 단연컨대 아마 없을 것이다.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에 나의 '고독함을 즐기는 공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와 같은 '고독을 즐기는 파'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집까지 1시간 30분 동안의 적절한 시간과 버스 안의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의 머리는 각자 고독을 즐기는 듯하다. 나 역시 그 고독에 동참하게 되는 분위기가 버스 안에 존재한다. 대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 전체 듣기를 하고, 좋아하는 노래는 한 번 더 재생해 노래의 가사를 곱씹는다. 물론 사람이 많을 때는 예외다.

고독이라 하면 구석, 흐린 공간을 떠올릴 것이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의 침대 위 무드등과 함께 있다면 그만큼 고독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배우들의 대사는 나의 고독을 한층 심화시켜준다.

혼자 가는 카페는 사람이 많은 적든 '혼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홀로 카페에서 계획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독을 나만의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함께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홀로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처음 고독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했던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살면서 고독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몰래 온 손님이다. 언제까지나 고독을 무시할 수 없으니, 고독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

엄마의 구명단 팬티

작은 집 안, 바람에 창이 흔들리는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일하게 이 집에서 소음을 내던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일주일쯤 돼서야 집에 올 수 있었다.

아빠도 동생도 나도 가족 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멍청한 우리 셋을 빼고는 마치 이렇게 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엄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처리됐다.

주말 초저녁 장을 보러 간 엄마가 다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였다. 생전 처음 본 그 아저씨는 우리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우리 셋보다 더 평평 울고 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아저씨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너무 흔하게 생겨서 그 뒤로도 사람들 사이를 스쳐 길을 가던 내 걸음을 문득 문득 멈추게 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 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날 아빠가 보던 신문도 그대로 쇼파에 있었고 동생이 아무렇게나 벗어둔 양말도 그대로 있었다. 엄마가 봤으면 분명 빨래바구니에 넣으라고 잔소리를 했을 텐데.

‘아, 맞다. 빨래.’

그 날 같이 장보러 가자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한 나에게 돌아온 건 빨래 널기라는 새로운 부탁이었다. 멈춰있던 세탁기에 동생의 양말만 집어넣고 들어 있던 세탁물 그대로 다시 세탁기를 돌렸다. 일주일이나 지나버렸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했기 때문이다. 세탁기를 돌려놓고 쇼파에 앉아 허공을 봤다. 세 명이나 있지만 여전히 집은 조용하다.

고개를 돌려 집을 훑어봤다.

아빠도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동생도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만 닫았을 뿐인데 이 작은 집에서 가족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내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을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세탁기가 다 돌아갔는지 적막감을 깨고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났다. 세탁물을 뽕뽕 꺼내 하나씩 널기 시작했다.

아빠 와이셔츠 서너 개, 동생의 메이커 티셔츠, 내 치마, 그리고 구멍난 여자 팬티 하나. 내 것은 아니다. 그럼 엄마의 것이다. 널 필요가 없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다.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구멍난 팬티를 입는 사람은 없다. 엄마를 제외하고는.

어렸을 때는 몇 번 도와 빨래를 널 적이 있었다. 그 때는 재밌는 놀이인 것 마냥 엄마를 쫓래쫓래 따라다니며 집안일을 도왔었다. 엄마를 좋아하던 어린 나는 이제 혼자 빨래를 널 수 있을 만큼 자랐고 구멍난 팬티를 보면서 엄마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다시 봐도 너무 낡았다. 왜 버리고 새로 사지 않았을까. 왜 아빠나 동생이나 내 팬티는 사오면서 자기 것은 사지 않았을까. 왜 항상 엄마의 강바구니에는 우리 셋을 위한 것 뿐이었을까.

뭉쳐있던 울음이 목구멍을 타고 기어올라 터져 나왔다. 아빠와 동생이 베란다로 뛰쳐나왔고 울고 있는 나와 내 손에 들린 엄마의 팬티를 번갈아보다 누가 먼저 울어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우리 셋은 빨래보다 더 무겁게 젖어 가리앉았고 결국 나는 오늘도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내 살 결
삶 기 심
을 로 했
다 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ㄷ · 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알랑성 알라리 알라...

‘개인주의자로 살자.’

[개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사회적 시각 등을 의미한다. 개인주의자는 자신의 목표와 욕망을 행사하는 것을 촉진하며, 따라서 개인의 독립과 자립에 가치를 두고 개인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집단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위키백과

마음 한편에 있는 이상을 실현하기란 제법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꽤나 치밀하고 음습한 구석이 있어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다. 무심코 튼 텔레비전 속 예능에서 행복하기 위해선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기적, 나는 ‘이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덧없이 유유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에겐 상당히 거슬리고 이상과 벗어나는 형태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저기 저 고려의 청년처럼 청산별곡을 노래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과 덧없음, 흐르는 시간과 물, 여유와 갈망 속에서 나는 하나의 문장에 다다른다.

내가 개인주의자의 형태를 보이게 된 건 하루아침의 결심으로 나타난 결과물은 아니다. 우유부단해 보일지 몰라도 나의 답은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래도 어떠한 계기를 묻는다면, 글썄, 까마득한 옛날-이래 봤자 십여 년에 불과하다- 당시의 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즐겼다. 심리 테스트, 성격 테스트, 사이코패스 테스트 등 딱히 진정성 없어 보이는 것들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은 나름의 일탈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공통되게 내 눈에 보이는 문장이 존재했다. ‘당신은 타인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며... 자유로움을 좋아한다.’

타인의 간섭을 반기고 자유로움을 마다할 사람 어디
 흔하겠나만, 그 당시엔 나를 관통하는 문장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란 어려웠다. 나는 숨 쉬듯
 분위기 파악과 눈치를 보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심한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지금도 그 점은 일맥상통한다. 그래도 간섭과 구속은
 더더욱 싫었다. 난 싫은 것에서 멀어지기 위해 발버둥
 치듯 노력하는 개인주의자일 뿐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롤 모델들은 하나같이 당차고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타인에 휘둘려 결정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남들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어놓지 않고, 멋대로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매겨지게끔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당차고
 멋있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에겐 싹수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도 그들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자 내가 몸소 느낀 것이니까.

완벽한 정의, 완벽한 진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모든
 이를 대변할 가치관과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세상은 부조리함의 연속이다. 나는 그 틈에서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개인주의자로 살기 시작했다.
 어디에도 완벽한 것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당연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이기적인 것과 다르다. 이기적인 건 나 이외에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주의는 그냥 오로지 나
 자신이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나로 살기 위한 것. 더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이렇게도 정직하고 올곧은 가치관이라니, 몹시
 어렵고 이상적일 수가 없다.

언제부터인가 현대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라 손가락질 당한다. 왜, 개인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볼까,
 이기적인 것과 같은 선상에 놓인 채 힐난당할 이유는 또 뭐가.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원하는바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는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기성세대가 가진 집단주의와 국가 이전에 국민 없다는 이론.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국민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범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 권리도 꾸준히 행사하는 나로서 '개인주의'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많이 억울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 보니 앞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애둘러 표현되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엔 내 지식이 부족하고, 상냥하고 따뜻하게 말하기엔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말하기엔 사실 난 롤 모델들처럼 당차고 떳떳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시원시원하게 결정 내리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이 글처럼 내 생각을 표현하는 장치에선 가급적 나에게 많은 물음을 던지곤 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어투를 쓰고 싶은지에 대해. "표현의자유"를 들먹이며, 어쩌면 나의 변덕과 욕심을 '개인주의자'로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럼 어떤가, 스스로에게 관대한 삶도 나쁜 삶은 아닌데.

그냥 나는 당신에게 당신 삶을 살자는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길게 주절거린 것일 줄도 모른다. 간단명료한 저 말을 하고 싶어 이만큼 밑밥을 간 것일 수도 있다. '주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나 길게 글을 쓰게 된 건, 내가 앞서 본 예능 속 '행복하기 위해선 이기적이어야 한다.'를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설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난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매일 자기 혐오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건 언제고 찾아온다. 당신도 나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냥 어려운 말 다 접어치우고, 나는 나의 삶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인공이 되어 살자. 내일이 행복하기 위해.

H

hosting

ECHOPATCH

모든 궁금증에는 에코가 있습니다.
실오라기 없이 파헤칠 **에코패치**.

당신이 만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소개하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싶은가?

영상, 글, 또는 사진, 많은 방법들로 우리학과를 소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자신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기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가장 우리학과를 잘 보여줄지도 사실 어렵다.

그래서 에코패치는 먼저 우리학과 **'홍보영상'**을 만들어 수상한 학우들을 만나보았다.

두 명의 학우의 글을 읽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학과를 소개 할 학우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변화의 중심엔
네가 있어

15. 김고은 학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5학번 김고은입니다. MC+조교도 하고 있어요!

Q. 이번에 학과 홍보영상을 제작하셔서 수상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공모전이 열린지 모르고 있었는데 콕미소 학우가 신청하는걸 보고 뒤늦게 신청했어요. "작년 PR글쓰기 전공수업 때 만들어뒀던 영상을 드디어 세상에 꺼낼 때구나!" 싶었죠. 그리고 우수상을 받았을 때 기쁨 반, 아쉬움 반이었어요. 대상이 목표였거든요. (웃음) 그래도 매일신문에 저희 영상이 기사도 나고 도전하길 참 잘했다 싶었어요.

Q. 홍보영상의 가장 큰 주제인 '변화의 중심엔 네가 있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기획팀이었기 때문에 기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타겟으로 잡은 대상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었어요. 여러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말들이

"불안감으로 시작해 자신감 있는 나로 변했다."였어요.

여기서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으로 학과명이 바뀐 것과 연관지어 '변화'라는 키워드를 뽑아낸거죠. 다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와서도 계속 자신감 부족, 진로에 대한 불안감 등 이런 고민은 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학과의 커리큘럼을 만나면서 해결하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인재로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학과가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죠. 그 외 학과의 기자재나 강의실 모습도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구성 했구요.

Q. 홍보영상을 만드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획부터 시나리오, 배우섭외, 촬영, 편집까지 다 너무 힘들었어요. 팀원들 다 잠잘 시간도 없이 밤새고 고생했어요. 카피 하나도 매끄럽지 않으면 바꿔야했고, 카피를 하나 바꾸니 내용이 다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결정할 때 신중해야함을 배웠죠.

Q. 또 다른 학과 홍보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만들고 싶나요?

또 만든다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웃음)
저희학과 강의실을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는 점이거든요.

Q.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 학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교수님께 받았던 피드백이 생각나요.
목적이 뚜렷한 영상인 만큼 What to say와 How to say를 잘 생각해보고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겸허하게 수정하는 마인드도 있어야해요.



15. 광미소 학우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5학번, 이번에 졸업을 앞둔 4학년 광미소입니다.

Q. 학과 홍보영상을 제작하셔서 수상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이라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상했다는 문자를 받고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어요.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주최한다는 포스터를 봤을 때 맨 처음으로 떠오른 것이 작년에 수강했던 PR글쓰기 과제였어요.
학과 명칭이 바뀌고 다른 홍보영상이라 공모전의 취지에 잘 맞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이니 공모전에 출품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 영상을 출품했었죠.

Q. 홍보영상에 보면 랩실과, 강의실을 보여주면서 학우들이 다 멈춰져 있는데 이러한 연출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영상에서 연출한 기법은 '마네킹 챌린지'라는 기법이었어요. 작년에 제작된 영상이라 그때 기획 회의때 가장 트렌디한 영상 기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주목받았던 마네킹 챌린지를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부동산세로 공간의 특징을 설명한다는 것이 신선한 느낌을 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 연출하게 되었어요.

Q.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학과 수업으로 제작한 영상이라 처음에 학과의 어느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기획을 해야 할 지 난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학과 안에 알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부분만 선택해서 그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나와 그 의견을 모으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회의가 끝나고 영상을 제작하던 시기에는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Q. 또 다른 홍보영상을 만든다면 어떠한 영상을 만들고 싶나요?

저희가 홍보했던 부분은 학과의 공간들을 설명해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학과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뭘까 생각하다 학과내 기자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홍보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학과내 기자재에 대해 설명하는 홍보영상도 제작해보고 싶어요. 학과가 아니라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비호생활관 홍보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4년동안 기숙사 호관을 여러 곳 다녀봐서 호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홍보영상에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Q.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싶어하는 학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기초적인 말이긴 한데 기초를 무시하고 진행 하다간 영상을 만들다 어려움이 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장단점을 잘 파악한 뒤 어떤 내용으로 대상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한 뒤 영상을 제작하면 훨씬 만족도 높은 제작물이 나올 수 있을거예요..

고독한 — 가

고독한 계절 가을. 타인과 함께 하지 않고 고독하게 자신만의 무언가를 묵묵히 해나간 적 있는가?
이번 ECHO에서 남이 뭐라하든 묵묵히 자신만의 무언가를 실천해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고독한 혼술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7학번 이효린입니다.

Q 본인을 고독한 혼술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A 혼자 집에서 맥주 마시는 일이 많아서요.

혼자 마시는 이유는 아무도 저랑 안 마셔주거든요...

술 드시고 싶을 때 연락 주세요. 010-xxxx-xxxx...

Q 취애 맥주는?

A 무조건 아사히!

Q 취애 안주는?

A 오징어요. 꼭 낙지 호롱구이 맛으로 먹어야 돼요. (비장)



고독한 소심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4학번 김동민입니다.

Q 본인을 고독한 소심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A 말 그대로 소심해서요... (인터뷰 하실 때도 소심하셨다.)

Q 네... 언제 처음으로 내가 소심하다고 느끼셨나요?

A 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남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말 할 일이 많아지더라구요.

요즘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Q 소심해서 얻은 이득과 손실이 있다면?

A 손실은 아무래도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에서 점수를 못 얻는 거?

이득은 소심하다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엄청 고민을 하고 말해요.

그래서 언행이 신중해지고 덕분에 인간관계도 진중해지는 거?

Q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도 소심한가요?

A 그런... 편입니다. 제 콤플렉스예요.



고독한 청소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7학년 옥지원입니다.

Q 본인을 고독한 청소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저는 더러운 꼴을 못 보거든요.

친구들이 결벽증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말인데 수업 시간에 다들 씻고 와주세요. (진지)

Q 우리 학과내에서 가장 청소해버리고 싶은 곳은?

A (한참 고민) 편집실 안 키보드 때요.

Q 청소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A 집이 내 얼굴이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자취경력 약 4년 차인 26살 박철우입니다.

20살 때 울산에서 7년간 통학한 이후로는 이러 저런 이유로 거의 자취를 했던 거 같네요.

Q 본인을 고독한 자취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스스로는 그렇게 고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보는 시선적 영향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혼자사는 거 치고는 필요한 건 다 구비해 놓고 살고,

바깥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뭐든 만들어 먹어요.

어릴 적부터 음식 하는 걸 좋아해서

계란말이, 라면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은 나베, 연어스테이크,

파스타 등 못 먹어본 음식도 재료랑 레시피만 알면 덤벼들죠.

자취생이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즐기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특하나 고독하게 보이는 거 같아요.

Q 자취하면서 얻은 00병은?

A 요리병이랑 결벽증? 배는 고프는데 식사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니

뭘 먹을 때마다 다음에 뭘 먹을지가 최대 고민이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로 먹방이나 쿡방을 많이 찾아봐요.

결벽증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미.우.세.'의 허지웅보다는 서장훈 쪽이 가까운 거 같아요.

무조건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지르는 걸 싫어해서 평소에 주변 정리에 신경 쓰고,

위생도 중요시하다 보니 주말에는 시간 내서 꼭 대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집에 종종 놀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좀 신경 쓰는 것도 있고요.

Q 자취할 사람들이 이것만 기억해라!

A 내방 꾸미기는 월급을 받고 나서~ 처음 로망은 나레바, 현실은... 바는 무슨... 내방의 퀄리티는 통장 잔고와 비례한다.

두번째, 가게부는 필수!! 카드에 구멍이 뚫린 게 틀림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00이 셀리가...

세번째, 요리 로망은 길면 한 달, 이후로는... 글세 요리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자.

배고프면 식칼을 잡게 되어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던가...

마지막, 우리 집 비밀번호를 조심해라. "오늘 너희 집에서 술 마실 건데, 너도 올래?" 분명 비밀번호인데 비밀이 없다.

고독한 자취가

종종 먹보

-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자

너무 외로운가? 혹시 혼자 벽을 보고 스스로 삼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독을 즐기기에 너무 벅찬가?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삼질하며 보내기에는 자신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어른들의 입을 빌려보자면 우리 인생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기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자! ECHO가 '좋은 거' 다 알려 주겠다!

맛있는 걸 먹기 전 마음의 양식을 채워 보는 것은 어떨까?
스스로 삼질하는 것에 몰두하지 말고 전시품에 몰두하자!

‘좋은 거보자’



오! 에르베 툴레 색색깔깔展

- 기간 2018.07.21. (토) ~ 2018.10.21. (일)
- 시간 11:00 ~ 20:00
- 장소: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입장료 (성인 기준): 12000원



해의 동쪽 달의 서쪽

- 기간 2018.08.11. (토) ~ 2018.11.10. (토)
- 장소: 호텔이매지너리
- 입장료: (사전 예약은 필수) 24000원



나의 어린왕자에게

- 기간 2018.10.05. (금) ~ 2019.01.27. (일)
- 장소: K현대미술관
- 입장료 (성인 기준): 15,000원

마음의 양식을 채우느라 무시했던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보자

‘좋은 거 먹자’



메시아

- 위치: 서울 용산구 화나무로13가길 23
- 가격: 15000원
- 하루의 한 메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 가정식집

// 거하게 칼질을 할 수도 있지만, 고독함을 달래 주는 데에는 가정식이 최고 아닐까? 적당한 포만감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 것이다. //



수수커피

- 위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15
- 대표 메뉴
아메리카노: 4300원
스콘(종류가 다양함): 3500원~4500원

// 밥을 먹었다면 디저트로 오늘 하루의 막을 내리자! 전시에서 보았던 작품을 커피 한잔과 함께 곱씹어 보기도 하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기도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 //

Falling in black tea

홍차하면 그 기원이 어디든 영국이 떠오를 것이다.

그만큼 과거 귀족들로부터 시작된 영국의 티타임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중화되었다.

샌드위치, 마카롱, 스콘처럼 간단한 간식과 함께 홍차를 파는 티숍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홍차는 아직 종류도, 이름도 낯설기만 하다.

가을을 닮은 샹샤름한 홍차에 빠지고 싶다면 이 글을 주목할 것.



- 차 종류 -



스트레이트티

다른 지역의 차잎을 섞지 않고
원산지의 차잎만 사용한 홍차로
다즐링, 아삼, 닐기리, 우바, 덩볼라 등이 있다.



블렌디드티

서로 다른 산지의 차잎을 섞은 홍차로
오렌지 페코, 애프너눈티,
잉글리시 블랙퍼스트가 있다.



향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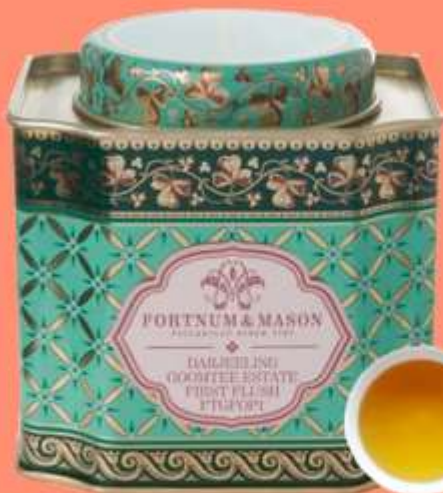
천연향료, 과일등을
인공적으로 첨가하여 만든
홍차로 얼그레이 애플티가 대표적이다.



트와이닝 : 1706년 T. 트와이닝이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커피하우스를 열면서 시작된 영국의 브랜드.

처음에는 단순한 주문 판매 방식으로 홍차를 팔았으나 지금은 다양한 블렌드 홍차를 만들어

세계 곳곳으로 수출해 쉽게 접할 수 있고 홍차는 물론 다양한 차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이다.



포트넘 앤 메이슨 : 왕실에도 납품될 정도로 긴 역사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홍차 브랜드.

포트넘 앤 메이슨사의 로고에는 4시를 가리키는 시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영국의 대표적인 티타임인 애프터눈 티를 의미한다.

우

재

하



쓸 쓸 하 다 면 떠 오 르 는 당 신 의 노 래

우리는 늘 쓸쓸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단지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쓸쓸함과 함께 무엇을 한다면
 또 다른 쓸쓸함 일 것이다.
 누군가는 혼자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며 힘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노래로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을과 쓸쓸함이
 함께 공존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
 '유재하'의 음악을 추천한다.

유재하

쓸쓸하다면
떠오르는
당신의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가리워진 길



이다혜,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1987

1.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뭔가 담백하고 기교 없는 순수한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그럴 때 조용히 흘러 넘어가는 유재하의 음악을 추천하고 싶다. 어떠한 조용한 음악과 조곤조곤 이야기 하는 것 같은 유재하의 목소리가 당신의 감정을 잘 달랠 수 있는 노래일 것이다.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2. 가리워진 길

혼자 있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이대로 내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가다간 아무 길이 없진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휘감았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노래를 추천한다. 힘이 되어줄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이다.

그대여 힘이 돼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이다혜,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2014

유 개 하

쓸쓸하다면
떠오르는
당신의 노래

지 난 날



3. 지난 날

우리는 늘 지난날을 후회하면 살아왔을 것이다. '그 때는 조금 더 잘할 걸, 그 때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더 빛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듣는다면 지난 날의 후회보단 옛 추억처럼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후회하고 있는 그때가 옛 추억처럼 그랜 그랬지 하며 아름답게 간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것.
다시 못 올 지난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Poetry in Autumn

시월의 시

예쁜 단어들 모여 짧은 문장이 되고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는 것, 시.
 쌀쌀한 날씨에 더욱 샘솟는 우리의 감성을 어루만지는 시들을 알아보자.

Backstage



in



Backstage



사람들 사이 섬에 갇힌 기분일 때
 별과달 중에 누가더 외로울까
 힌트는 별은 무수히 많은데 달은 혼자라는 것
 그래, 별이 더 외롭지
 무수히 많은 속에 혼자인 게 훨씬 더 외롭지
 당신처럼, 나처럼
 정철, 별과달 중에

끝이 어딘지 막막할 때
 뭔가가 시작되고 뭔가가 끝난다
 시작은 대체로 알겠는데 끝은 대체로 모른다
 끝났구나, 했는데 또 시작되기도 하고
 끝이 아니구나, 했는데 그게 끝일 수도 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아, 그게 정말 끝이었구나 알게 될 때도 있다

그때가 가장 슬프다

황경신, 그때가 가장 슬프다

쓸쓸한 새벽일 때

나는 너에게 좋은 추억따위로
 남고 싶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경험이 되어주고자
 나를 통째로 내던져주었던 게 아니란 말이다.

너는 나를 무어라 생각했는가.
 창밖에 빗줄기가 처량히 떨어질 때
 네 생각이 났다.

오들오들 떨며
 너의 우산을, 너의 품을 기다렸던
 내 생각이 났다.

하얀 김이 풀풀 날 정도로 나에게 내달렸던
 너는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겨워 한껏 웃음지었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류선우, 새벽이 가져다주는 처량함



당신 홀로 남겨졌을 때
별이 떨어진다면 당신이 있는 공간으로

네가 아침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을 때
천장을 뚫고 쏟아지는 별들

나는 그 별을 함께 주워담거나
그 별에 상처난 너의 팔을 잡아 주고 싶었다

지나 보면 역시 나만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너에겐 특하나 그랬다

조용히 밥을 먹는 너보다 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너를 고요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의 고요한 아이야, 가끔은
시끄럽게 너와 선루프를 열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정적이 찾아올 때
벌거벗은 나의 등을 안아 주던 게 생각난다
너는 작고 나는 포근했다

우린 오래오래 안녕이지만
오래오래 사랑한 기분이 든다

네 머리를 쓰다듬고 강에 뛰어들고 싶다
오래오래 허우적거리며 손의 감촉을 버리고 싶다

한 행성이 내게 떨어져 간 것은 재앙이다
네가 두고 간 것들을 나만 보게 되었다

너를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성동혁, 1226456



고독 대신 구독은 어때?

가을이 오면 괜히 쓸쓸해지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기분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가을 타는 요즘 나의 고독함을 해소시켜줄 유튜브. 고독 대신 구독은 어때?

1. 잔잔한 일상, ondo온도



평범하고 잔잔한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온도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자취의 로망을 만들어준다.
자취의 정석. 혼자 카페도 다니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파클이나 과일 우유를 보면
괜히 구독자가 뿌듯해지고 나도 도전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2. 71세 박막례 할머니의 무한도전!, 박막례 할머니 Korea Grand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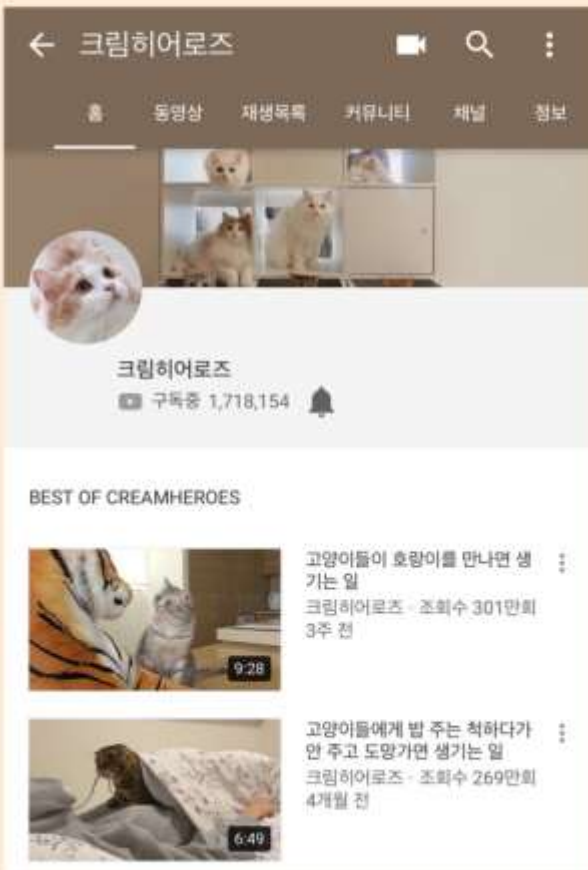
박막례 할머니는 치매예방을 위해 손녀 분과 함께 뷰티 유튜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시작이 할머니에게 또 다른 인생을 선물해주었다.
계모임 메이크업이나 시장 쇼핑 하울부터 이제는 미국 구글 본사에 초대를 받는 할머니!
구수한 할머니의 사투리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다.
깔끔하고 한 편의 예능을 보는 듯한 손녀분의 편집 실력은 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를 추천하면서 살짝 전해본다.
하고 싶은 일에 나이 제한을 두지 말아요 :)



3. 키즈 대통령, 헤이지니 HeyJini



지니의 재미있는 인형놀이부터 장난감 놀이, 만들기 놀이, 브이로그까지! 키즈 대통령인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만 좋아한다는 편견은 접어두자!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거대 젤리 만들기, 액체 과물 만들기 영상도 업로드되어 있다.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구독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4. 7마리 고양이와 집사이야기, 크림히어로즈

디디, 티티, 모모, 코코, 츄츄, 루루, 라라 7마리의 고양이는 집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지켜주는 귀여운 영웅 크림히어로즈! 집사와 고양이의 매일매일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다. 고양이 목욕영상, 고양이 장난감 놀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와 개그 프로그램급 집사의 개그가 다른 고양이 채널과 다른 강점이다.



무엇으로 가을을
정의할 수 있을까
찰나에 찾아와 정의를
해보려 할 때 좀
차갑게 사라져버리는 게 가을의
정의를 아닐까

여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겨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 찰나의 분위기를
잡아낸 메이크업이다.

The mood of Autumn

입생로망 잉크르 드 브 울이워 파운데이션 SPF20/PA++ 25ml 70,000원
메이블린 뉴욕 브로우 블렌더마스크 80ml 15,000원
에워드하우스 록 앤드 라이 아이즈 저널 800PCS 20 3,500원
루나송 이브 크림프랑 47,000원
페리페라 밝은 수채화 컴팩트 40 20,000원
VDL 루미네어 울이머 스킨 50 18,000원
맥 런스타 립스틱 씨쉬어 30 30,000원
디올 루즈 디올 울트라 루즈 851호 3.2oz 43,000원



Hi!
I'm Corduroy



2006년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겨울만 되면 엄마가 장롱에서 꺼낸 골덴 바지를 기억하는가?
그때 내 기억 속 코듀로이 팬츠는 촌스러움이 덕지덕지 묻어있었다.
내 의지대로 옷을 구매하는 나이가 된다면,
절대로 코듀로이는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과거의 다짐은 어디 가고 나도 모르게 코듀로이 셔츠,
팬츠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과거 내가 몰라보았던 코듀로이의 매력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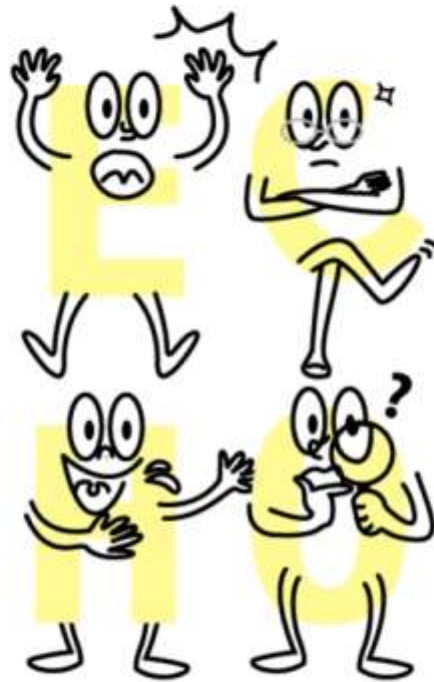
최근 셔츠, 재킷, 모자, 신발, 가방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 소재를 코듀로이로 사용하고 있다.
보기만 해도 가을이 연상 되며,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재 자체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심플한 옷차림에 간단한 포인트로 주기도 좋다.
가을 핫한 아이템을 놓칠 수 없다!
열린 장바구니에 코듀로이를 담는 건 어떨까?

VOL.19



現像所

VOL19 EVENT :



각 콘텐츠마다 숨어 있는 E, C, H, O를 찾아주세요!

다 찾았다면 캡처 후 인스타그램

#ECHO

@ECHO.KOREA

만 태그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

총 3분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EC HO

vol. 19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Sunghae Kim

편집위원장

우혜정 Hyejung Woo

부편집위원장

김나영 Nayoung kim

편집위원

Editor - 김고은 Goeun Kim

Design - 손민정 Minjeong Son

Editor - 김가희 Gahee Kim

Design - 이다혜 Dahye Lee

Editor - 공유나 Yuna Kong

Design - 전명주 Myeongju Jeon

Editor - 손민경 Minkyong Son

Design - 박소미 Somi Park

Photo Editor - 이경연 Kyeongyeon Lee